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음 1월 4일)

제31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메카 '성큼'

도, 자율주행기반 구축 2단계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완료 자율운송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연계 통한 기술개발 박차

상용차의 자율주행운행을 조기 상용화 시키고 그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북도의 산업화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용차 전주기 자율주행 기반 구축 사업 중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공사가 완료됐다.

전북도는 이번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완료로 지난 2018년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새만금주행시험장과 2022년 신규로 추진 중인 3단계 자율운송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글로벌 상용차 회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해 정부 공약사업에 반영시키는 등 전주기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목표로 조기 상용화와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준공된 1단계 새만금주행시험장은 총 면적 43만5,017㎡ 규모(약 13.2만평)에 상용차의 주행 안전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빗길 및 눈길을 모사한 저마찰시험로, 동력계통 및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주행로, 주행수명을 예측하는 내구시험로 등 총 8개의 시험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또는 부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초적 실증이 가능하다.

새만금주행시험장은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중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시험로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 및 특장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시설인 데다 관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차량시험정비를 위한 정비동 등 지원 공간도 겸비해 있다.

이번에 완료된 2단계 사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성능검증 단계로서 자

율주행 차량을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의 직선로 10km 곡선로 1.5km에서 시속 60km/h 돌발상황 등 실제 도로를 모사한 환경을 조성해 자율(군집)주행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와 기반 시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연결하는 통신시설과 신호교차로, 합·분류 구간 휴게소, 공사구간 등을 포함한 실제 도로에서 이륜차, 보행자, 차량사고 등을 미주치는 다양한 가상·실사 이벤트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3단계 자율운송 실증지원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군산항과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IC 입구를 잇는 구간(총 38km)에 실증도로 인프라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계획은 자율운송 상용차가 실도로에서 일반차량과 함께 주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달성하는 것.

전북도는 전 주기 자율주행 기반 구축 사업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중전·중소 협업 기반 구축사업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인프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학연 연계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로 인한 자율주행 전문인력 확보와 일자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북도는 화물 운송용 중대형 상용차의 국내 총생산량의 99%를 담당하는 생산기업이 5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있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가 자리매김하고 있어 상용차 부품개발, 특장설치, 완성차 산업에 자율주행운송 기술을 더해 국내 상용차 산업의 독보적 입지를 굳혀 가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다시 일상으로... 귀경열차에 탑승하는 시민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전주역에서 귀경열차에 오르는 시민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전북도, 도내 대설·한파 총력대응 나서

도로결빙 사고 예방 위해 사전제설작업 실시키로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 위해 행동요령 안내

전북도는 24일 도내 곳곳에 대설주의보와 한파경보, 한파주의보 등이 발효돼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고창,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등 5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고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순창, 익산 정읍 전주 등 9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전북안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됐다.

또한 고창, 부안, 군산, 김제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해 대설과 한파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서해안파 정읍, 순창은 25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5~15cm(많은 곳 25cm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요 고갯길과 귀경차량 혼잡지역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및 사전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설 전·중·후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참터로 대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4일과 25일 기온이 10~15℃가량 큰폭으로 내려가 전북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으며, 특히 짧은 시간동안 기온이 20℃가량 급격히 하강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 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윤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의 전화·방문으로

안부확인 실시하도록 했다. 허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제설작업의 만전을 기하고 적설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내 집앞 눈물기, 농작물 비닐하우스 지붕 눈치우기 등 시설물관리와 한파에 대비해 가급적 외출자제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수도계량기·보일러 등 시설물 동파와 농축산물, 양식장의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우유 바우처 8개 시군으로 확대

전북도는 우유소비 촉진과 이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만 6~18세의 사회경제적대안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해 고창, 임실, 장수, 정읍 등 4개 시군에 이어 올해 남원, 무주, 순창, 진안까지 추가해 8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째 맞는 만 6~18세의 사회경제적대안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올해는 전국 지자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전북도는 8개 시·군의 참여로 53%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해 8개 시군 5,7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바우처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은 월 1만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 5개 편의점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인 우유류, 치즈를 비롯해 가공류, 발효유 등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권 4대도시로응비하는 김제

민생복지 경제활력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성공 기원